

한국 민속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모양상

—바람직한 여성상 모색을 위한 시론—

강 진 옥*

<차 례>

- | | |
|----------------------|---|
| 1. 머릿말 | 3.3.민속문학에 나타나는 여성상 |
| 2. 무속신화에 나타난 원형적 여성상 | 4. 바람직한 여성상 모색의 단서와 전망 |
| 3. 민속에 나타나는 여성상의 양상들 | 4.1.현대사회와 여성적 현실 |
| 3.1.외래사상과 여성상의 변모 | 4.2.문제해결의 단서 : 무속 여성신들의 근원적 생산성에 대한 재발견 |
| 3.2.민속신앙관념 : 祈子俗의 경우 | 5. 맺는말 |

1. 머릿말

한국 여성은 누구인가를 묻는 물음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인식은 무엇일까? 현대를 살고있는 한국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전통사회의 문화적 현상을 새롭게 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견할 필요가 있다. 우리속에 깃들어있는 전통적인 한국여성들의 생활과 관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여성의 정신세계 깊숙한 층위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상의 원형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전통사회를 지탱해온 민속, 특히 깊은 영향력을 가졌던 신앙관념과 만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상의 원천이라고 말해지는 巫俗은 역사 이전부터 민족의 삶과 더불어 존속하면서 때로는 국가적 이념을 대변하는 사상체계이기도 했고 때로는 삶의 풍요를 가능하게 하는 주술적 의례로서의 기능을 가지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과 무속의 관련성은 일찍부터 확인된다. 이른 시기부터 祭儀의 담당자로 활약한 여성 司祭¹⁾의 전통은 현행 무속에서도 계승되고 있다. 특히 유교를 국가적인 이념체계로 받아들였던 조선시대 이후에는 무속이 여성을 중심으로 한 종교의례화 하면서 여성들과 더욱 긴밀한 관련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 巫俗儀禮에서 祭享되는 神들은 무속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신으로 숭앙되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들이 신으로 좌정할 때까지의 내력을 풀이하고 있는 巫俗神話는 신을 제당에 강림하게 하는 청배무가로서의 기능과 함께 문학적 상상력을 유발하는 흥미로운 서사문학으로서의 의의도 함께 지니고 있다.³⁾ 무속신화에는 여성인물이 고

1) 무당을 의미하는, 차차웅 또는 자충이라 불렸던 남해왕[삼국유사 기이편]이 혁거세의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데 친누이 아로에게 제사를 맡게 하였다는 기록이 삼국사기 권제32 지제1 제사편에 실려있다.

2) 여성과 무속의 친연성에 대한 논의는 사회인류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최길성(1982), “무속에 있어서 집과 여성”, 한국무속의 종합적 고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pp.94-98에는 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고 있다.

3) 서사무가는 청배라는 제의적 기능, 신의 위대한 행적을 들려줌으로서 숭앙감을 갖게하는 종교적 기능, 흥미있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문학적 기능을 함

난을 극복하고 신직을 부여받는 여성신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女性神格의 모습은 무속을 신앙하는 여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행적은 여성신도들에게 이상적인 삶의 典範으로 이해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문화속에 내재해 있는 原型的 女性像을 추출하고 그 역사적 변화양상을 고찰하여 오늘을 사는 한국여성들의 자아정체성 확인에 참고가 되는 바람직한 여성상 모색의 단서를 삼고자 한다.

2. 무속신화에 나타난 원형적 여성상

민족문화와 무속의 친연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참고할 때, 무속 의례에서 불려지는 신화들에 대한 관심도 새로운 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대석은 무속신화 제석본풀이가 동명왕신화와 구조적인 일치를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그 형성을 고대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으로까지 소급할 수 있으리라고 추정한 바 있다.⁴⁾ 또한 바리데기 무가의 문학사적 위상에 대해서도 신화와 소설의 중간적 위치인 서사시로 규정한 바 있다.⁵⁾ 현존하고 있는 무속신화들은 장구한 세

게 가지고 있다. 서대석(1982), “무가”, 한국민속대관 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485.

4) “제석본풀이는 부족사회가 형성되고 농경에 의한 정착생활이 시작되면서 이루어진 생산수호신 신화의 후대적 변모라고 본다면 고구려 국조신화 이전부터 전승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몽신화는 고구려 국조신화로 변모되어 문헌에 정착된 생산수호신 신화의 일례가 된다.” 서대석(1980),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p.109.

월을 전승해오는 동안 여러 요소가 덧보태지면서 외형상으로는 다양한 변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신격의 기능이나 신화적 속성까지 변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⁶⁾ 이같은 관점은 무속신화속의 여성신들을 이해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들 여성신격의 원래적 성격은 풍요를 가져오는 생산신들의 신화적 상징으로 보인다. 여성신들의 행적에 대한 서술들에 후대적 요소들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첨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같은 外皮아래, 공통적으로 담겨있는 보다 근원적인 속성이 생산성의 내재와 그 발현으로서의 생명력에 집약되어 있다는 사실⁷⁾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무속의례에서 불리어지는 무속신화에는 여성신에 대한 내용이 상당수 발견된다. 다음의 여성인물은 무속의례에서 독립된 祭次를 확보하고 있는 여성신들로서 신격으로 좌정하게 된 내력을 풀이하는 무속신화속에 뚜렷한 활약상을 구현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2.1.당금애기는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무속신화 제석본풀이⁸⁾의 여성인물이다. 제석본풀이는 생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제석신을 제향하는 제석굿거리에서 구송되는 무가이다. 당금애기가 낳은 세명의 아들 帝釋神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시되고 있는 가치인 壽·福·農業을

5) 서대석(1980), p.247.

6) 서대석(1980)은 제석본풀이 연구에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 佛僧으로 그려진 남성신의 원래적 성격이 불교적으로 변용된 천신임을 밝혀내고 있다. (pp.77-89) 이를 통해서 전승과정에서 첨삭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신격이나 신화적 속성등은 쉽게 파괴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강진옥(1995a), “무속신화와 일상의례를 통해본 여성의 종교성”, 여성신학논집 1, 이화여대 여성신학연구소 참조.

8) 제석본풀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서대석(1980)을 참조. 본고에서는 김유선 구송·서대석 채록의 동해안본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관장하는 生産神이기 때문에 풍요를 추구하는 무속의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신격이다. 여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에서 당금애기는 많은 시련을 겪는다.

당금애기의 시련은 예상하지도 못했던 남성신의 도술에 의한 접근으로 잉태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공적인 일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던 가족들은 혼자 남게 될 당금애기를 염려하여 12대문을 겹겹이 닫은 위에 그녀가 있는 방의 문을 밖으로 잠그고 구멍밥을 먹도록 조치한 뒤 두 명의 시비를 남겨놓고 떠난다. 일을 마치고 귀가한 가족들은 당금애기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고, 아버지와 오빠들은 그 사실에 분노하여 그녀에게 작두죽음을 시행하려 한다. 당금애기는 어머니의 눈물어린 간청의 결과 가까스로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 아무도 돌보지 않는 굴속에 갇혀 아들 세쌍둥이를 낳는다. 당금애기의 시련은 작은 공간속에 윤회되어 몇차례의 상징적인 죽음을 겪는 것으로 대표된다. 이는 곡물 발아를 연상시키는 생산신의 죽음과 재생을 뜻하는 것으로서, 풍요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⁹⁾

2.2.바리데기는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무속신화의 여성인물로서, 죽은 자를 위한 死靈祭에서 받들어지는 신격이다.¹⁰⁾ 바리데기는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 西天西域國의 약물과 생명의 꽃을 가져와 죽은 아버지를 소생시킨 뒤 巫神이 되었다. 일곱째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버려졌다가 되돌아온 바리데기는 부친의 약을 구하러 혼자 길을 떠나면서 수많은 난관과 대면하게 된다. 바리데기가 난관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개입하는 초자연적인 존재의 조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9) 강진옥(1995a), pp.171~172.

10) 바리데기 신화의 전승지역에 따른 이본간의 차이, 문학사적 검토, 미적범주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서대석(1980)의 바리공주 연구를 참조할 것.

가 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그녀 스스로 일정한 댓가를 지불하고 문제해결의 단서를 찾아갔던 대목들이다. 동해안본¹¹⁾에서 이같은 성격은 잘 나타난다. 바리데기는 무장승이 지키고 있는 약수터로 가는 길을 알아내기 위해서, 밭가는 노인에게는 그가 요구하는 대로 밭을 대신 갈아주고 빨래하는 노파에게는 그 빨래를 대신 해주는 등의 과정을 거친후 약수터에 도달하지만 그곳에는 여행의 핵심인 약수와 교환될 더 큰 희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무장승이 약물을 주는 댓가로 요구했던 아들 낳아주기는 그녀앞에 놓여있던 약물긴기라는 과제가 여성인물의 희생에 입각한 효행 확인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바리데기의 求藥여행은 버림받았던 여성의 진정한 자기회복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²⁾ 이것은 평범한 인간이 특별한 능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탐색의 과정에 해당된다.

바리데기가 생명의 꽃과 약물을 얻는 과정에 대해 무가에서는 일정한 댓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외부로부터 받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존재론적으로 읽을 때 그것은 바리데기에게 일어난 존재론적 전환이라는 대사건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첩되는 자기부정의 과정을 거쳐 그녀 자신이 이루어낸 내면적 변모를 뜻하는 것이다. 특정한 기능을 갖는 생명의 꽃들을 획득했다는 것¹³⁾은 이미 그녀 자신속에 그같은 권능이 갖추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녀가 얻었던 약수 또한

11) 한국구비문학학회(1977), 한국구비문학선집, pp.187-222에 실려있는 김복순 구송·서대석 채록본인데, 본고의 주된 대상자료이다.

12) 강진옥(1995a), p. 157.

13) 동해안본의 경우, 꽃의 빛깔에 따라 기능이 분화되고 있는데, 예컨대 흰꽃은 뼈와 살, 붉은 꽃은 피, 푸른 꽃은 숨을 되살아나게 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한국구비문학학회(1977), p.210.

그녀 스스로가 그같은 치유의 능력을 체득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¹⁴⁾

2.3.자청비는 제주도 무속의례인 세경굿에서 구송되는 세경본풀이¹⁵⁾의 주인공이다. 세경본풀이는 한 여성이 자신에게 주어진 갖은 역경을 지혜와 용기로서 이겨내고 사랑을 실현했을 뿐 아니라, 천상의 변란을 평정한 공로로 萬穀의 종자를 천상의 옥황에게 당당히 요구해서 지상의 인간들에게 제공해줌으로써 농업생산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을 담은 신화이다. 지상과 천상 그리고 서천세계로의 자유로운 공간이동과 몇 차례나 반복 시행되었던 생명 소생능력 등은 농경의 신다운 능력의 발현으로서, 여타 신화의 인물들에게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의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다.

2.4.삼승할망본풀이¹⁶⁾는 출산과 육아를 관장하는 삼신의 내력을 풀이한 것이다. 그는 인간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그것에 위협적인 모든 요인들, 어린아이를 여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大母神의 역할을 관장하여 인간세상을 번성케하는 존재로 숭앙된다. 동해용왕 따님 아기와의 대결이나 천연두를 앓게 하는 남신 대별상과의 대결에서 드러나는 할망의 성격은 생명을 관장하는 대모신적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삼신이 발휘하는 생명력과 죽음의 이미지와 연관되는 대별상의 대결은 처음 대별상의 위력이 삼승할망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삼승할망이 대별상의 아내에게 잉태만 주고 해산을 시키지 않게 되면서 역전된다. 위세를 보이던 그는 아내가 위급해지자 아내의 부탁대로 결국 삼승할망에게 무릎을 꿇고 자기 아내의 해산을 애원한다. 이를 통해서 대별상의 위력은 생명소생이나 육성과는 무관한 비생

14) 강진옥(1995a), p.159.

15) 현용준(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pp.315-364.

16) 현용준(1980), pp.108-122.

산적인 힘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여기에 대해 삼승할망은 부드럽고 유화적이나 생명에 대한 강한 사랑을 입증함으로서 그가 생명창조와 육성에 관여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들의 대결은 생명의 원리를 지배하는, 보다 근원적 힘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2.5.가문장아기는 제주도 무속의례 삼공본풀이¹⁷⁾의 주인공이다. 자기 삶은 자신의 몫이라고 부모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하던 가문장아기는 은혜도 모른다고 분노한 부모로부터 집을 쫓겨나온 뒤에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내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 보인 인물이다. 그녀는 거지잔치를 하여 맹인 거지가 된 부모를 찾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온 내력을 얘기하게 한 뒤 자신이 딸임을 밝혀 그들의 눈을 뜨게 한다. 이때 부모에게 자신들의 내력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과정으로서, 그들이 눈을 뜬다는 사실을 가능하게 하는 단서이다. 여기서 부모의 ‘눈멀(眼盲)’과 ‘눈뜸(開眼)’은 외적 현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일어났던 인식의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가문장아기는 생래적으로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그것을 실현한다. 여타 여성신들과는 달리 집을 나가면서부터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집에서부터 쫓겨남(격리)은 그가 지닌 비범한 능력을 구체적으로 발현하게 하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가문장애기가 부모의 눈을 뜨게 한다는 사실은 바로 부모를 깨우친다는 의미가 된다. 이같은 점에서 이 신화가 지니는 교육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다. 가문장아기의 태도는 삶에 대한 주체적인 자각을 한 여성의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6.이러한 무속 여성신격들의 행적은 현상적 자아의 부정을 통해

17) 현용준(1980), pp.192-204.

초월적인 능력을 획득한 존재들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당금애기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임신하게 되고, 분노한 아버지와 오빠들로부터 쫓겨나는 등,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물형으로 그려진다. 이같은 당금애기의 受難은 곡물의 파종과 결실에 이르는 동안 대지가 거쳐야할 죽음과 소생의 양상을 반영하는 地母神的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가족과의 단절과 윤패의 반복인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 그리고 아버지를 찾는 아들들과 함께 남편을 찾아가서 神職을 부여받는 전 과정까지 당금애기가 겪는 시련은, 비록 그것이 여성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외부적 조건속에서 부과된 형태일지라도, 현재적 자아를 멸각하는 과정없이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다. 그 시련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녀는 인간의 삶을 풍요하게 해주는 삼불제석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바리데기는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존재이다. 그러나 버려진 산속에서 대자연의 도움으로 성장한 그녀는 약물구하기와 관련한 좌절 때문에 자신을 찾으러온 어머니를 만나 아버지의 병환소식을 듣고 자청하여 약물을 구하러 떠난다. 많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異界-서천세계로 가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서천에서 무장승에게 약물값으로 3명(7명)의 아들을 낳아주는 과정은 현존재로서의 자기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¹⁸⁾ 그녀는 약물과 생명의 꽃을 가지고, 뒤따르는 아들들과 인간세상으로 돌아오는 길¹⁹⁾에 아버지의 장례행렬을 만나게 되어 그를 소생시킨다. 생명을 소생시켰다는 功業

18) 강진옥(1995a), p.158

19) 대부분의 본에서 아들들이 뒤따라오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서울본의 경우에는 남편인 무장승이 동행하고 있다. 서대석(1980) p.216

으로 바리데기는 이승과 저승을 왕래하는 사령제의 신격으로 좌정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자청비의 시련과정은 생산신으로서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학습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자청비의 사랑은 문학적 흥미를 주는 연애담적 성격이 강한데, 그 인물성격의 근원적인 속성으로 볼 때 그같은 시련과 사랑의 성취에 따른 전과정은 풍요를 상징하는 농경신의 자격에 부합되는 생산성 확인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원래적 형태일 것이다. 자청비는 부자집 외딸이라는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 엄청난 시련을 겪었으며 그 결과 인간세상에 곡식의 종자를 가져다주는 문화영웅적인 면모를 갖춘 世耕神으로 좌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삼승할망은 옥황상제앞에서 자신의 소견을 똑똑히 밝히고 그 비범성을 인정받아서 신직을 부여받고 돌아오는 길에 그보다 앞서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잉태방법을 듣고 삼신역할을 자임했던 동해용왕 따님아기의 도전을 받아 대결하지만 승리한다. 삼승할망이 지닌 생산력의 근원성은 용왕국 따님아기와 꽃피우기 내기에서 확인되어 신직에 좌정하며 이후 생명을 제약하는 갖가지 요소들과 적극적으로 대결, 극복하는 것으로 입증된다.²⁰⁾

가문장아기도 부모의 뜻에만 의존하는 안일한 삶을 거부하고 자기 존재의 주체적 의의를 주장하다가 쫓겨난다. 집을 나온 가문장아기는

20) 삼승할망본풀이에서 나타나는 특이성은 삼승할망이 자신에게 도전하여 대결했던 동해용왕 따님아기와 자매애를 보여주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이 기실은 한 사실의 兩面으로서 삶속에 죽음이 함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승할망의 승리와 권위의 확인이라는 귀결을 통해서 우리 무속은 죽음보다는 삶의 세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 판단에 따라 가난한 노부부의 세째 아들인 마통이를 남편감으로 선택했고, 그가 마를 캐는 곳에서 금덩이를 발견하여 큰부자가 된 뒤 거지잔치를 열어, 그동안 눈도 멀고 거지가 되어 고생하던 부모를 만나서 눈을 뜨게 한다. 거지잔치를 통해 그녀는 부모에게 인간은 모두 자기몫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부모의 失明이나 得明은 인간 각자에게 부여된 고유한 삶의 몫에 대한 주체적인 자각의 유무를 말해주는 상징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부모가 눈을 뜬다는 사실은 인간 운명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과 각성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의 이야기가 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인물들이 자신의 비범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적의 공통적 속성은 죽음, 윤패와 감금, 쇠퇴, 어둠, 빈곤 등의 불모성에서 생명, 출산, 번성, 밝음, 풍요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생산성의 확인에 있다. 이상의 무속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속 여성신격속에 내재하고 있는 원래적 성격이 근원적인 생명력, 풍요 그 자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²¹⁾ 무속의 여성신격들은 생산을 관장하는 존재들로서 무속신화는 그같은 생산력의 구현과정에 대한 풀이인 것이다.²²⁾

그러나 현전 巫歌 자료에서 그들을 수식하고 있는 이념적 가치들은 여성신격의 고유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버려진 바리데기가 효를 실현하기 위해 온갖 희생을 다

21) 이같은 사실은 신화에서뿐 아니라 신화적 사고를 뒷받침하고 있는 선사시대의 고고미술품에서 흔히 발견되는 보편적인 여성상징으로서 벨렌도프의 비이너스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1972), 한국여성사 1, pp.20-21.

22) 이같은 사실은 현존하고 있는 풍요의례에서 생산신에 관한 제의 또는 신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진옥(1993), “변강쇠가 연구I”, 동리연구 창간호, 동리연구회, pp.18-19.

치른 내용이나, 혼전임신으로 가문의 명예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쫓겨났다는 당금애기에 대한 서술, 신격 좌절까지의 전과정에서 드러나는 업적들은 전적으로 자청비의 활약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청비가 중세경인데 비해 부수적 위치에 있던 문도령이 상세경에 자리하는 것 등은 일정한 시대적인 배경아래 부가된 특정이념의 영향임을 부정하기 어렵지 않다. 가부장 이념이 개입함으로써 근원적인 생산성을 의미했던 여성상징은 이념적 지향이라는 새로운 색채를 띠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신화속에서 여성들의 행적을 서술하면서 그들이 보여주는 자기부정의 근거를 가부장적 가족주의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현상은 그같은 변모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제주도 무속신화 서두에서 흔히 발견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연결되는 삼대기 서술형식과 여성주인공의 출생과정에서 등장하는 기자정성의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초공본풀이의 자지명애기씨나 세경본풀이의 자청비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들이 아들남기를 빌었지만 기도가 끝난 날 정성을 달아본 결과 그 근량이 백근이 차지 못했기 때문에 딸로 점지되었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여성을 남성보다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태어났다는 여성인물이 해당 무속신화에서 주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내용적 실상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 원래적 성격이라기 보다 후대적 변모 또는 첨가된 부분으로 생각된다.

3. 민속에 나타나는 여성상의 양상들

3.1. 외래사상과 여성상의 변모

3.1.1. 앞에서 보았던 바같이 무속여성신의 신화적 성격은 근원적인 생산성과 연결되고 있어 인류문화의 초기단계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신화적 관념과 일치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속성을 지닌 여성신들의 성격은 그 행적에 대한 서술부분에서 발견되는 후대적 요소들도 불구하고 그 근원적 속성으로 볼 때 풍요의례에서 숭앙되던 생산신 관념에서 보여지는 바 원형적 성격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여성인물들은 한국 여성상의 원형적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무속신화를 한국여성상의 원형적 형태로 간주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로는, 무속신화는 무속의 주재자인 사제와 그 신봉자인 신도 등 무속향유자들의 관념의 소산이라는 점이다. 특히 무속의 여성신격에는 당대의 문화적 여건속에서 형성된 여성에 대한 관념이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정된 상황이라는 제약속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의 모습과 그들에게 부과되어 있는 제약들을 극복해가는 방안들을 통해서 당시 사회적 여건속에서 그들에게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여성적 삶의 형상을 집약적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무속신화는 원형적 여성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무속 의례의 현장은 단순한 종교적 현장만이 아니라 전통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가치관념들이 함께 부각되는 현장이다. 그 현장은 의례에

참여하는 공동체 성원 모두에게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상황을 깨우치게 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함께 지니고 있다.²³⁾ 매년 되풀이 되는 의례에서 구연되는 신들의 내력을 풀이하는 무속신화에도 익숙해졌을 무속신앙자에게 그것은 그들이 숭앙하는 신들의 신성한 행적을 서술하는 것으로, 특히 고통스러운 현실적 여건속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여성신격들의 행적은 무속을 신봉하는 여성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전범이자 모델로서 인식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여성상은 무속신앙에 바탕한 우리 전통여성들의 삶의 지표로서 여성 삶의 방향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어왔을 것으로 본다.

3.1.2.삼국시대 이후 불교가 수입되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불교적 세계관도 무속의 체계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²⁴⁾ 현상세계의 無常性에 바탕한 無我를 강조하고 我相을 부정하는 불교의 가르침과 여성의 삶의 관계는 삼국유사 소재 불교설화 몇편을 통해 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옥면²⁵⁾은 阿干 貴珍의 집 노비였지만,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지극한 정성으로 수행정진하여 끝내 승천이라는 결말을 얻은 인물이다. 그녀는 주인이 곡식 두석을 주어 하루저녁에 쫓게 하였지만 초저녁에 다 쫓고 절에 와서 염불을 하였는데, 손바닥을 뚫어 말뚝에 매고 합장하여 좌우로 흔들면서 염불할 정도로 열렬했다. 삼국유사에서는 옥면의 전생을 제시함으로써 그녀의 수행과 異蹟적인 결과가 이르게 된 원인을 설명한다. 그러나 전생과 상관없이 읽을 때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23) 김인희(1987), 한국무속사상연구, 집문당 참조.

24) 무불습합의 양상은 불교측에도 발견되지만 일단 무속의 측면에서 볼 때, 신격의 명칭(예컨대 제석)이나 신의 속성은 물론 무가사설에 염불이나 진언을 차용하는 등 여러 요소를 지적할 수 있다.

25) 삼국유사 제 7 感通, 郁面婢念佛西昇.

드러나는, 현상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내면적 지향을 따라 전력투구하는 모습은 현상적 자아를 넘어서는 인간정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관음신앙의 형태로는, 부레랑의 어머니 용보부인이 狄賊에게 잡혀간 아들이 무사하기를 백율사 관음에게 여러날 기원했더니 돌아왔다는 것²⁶⁾이나, 민장사 관음에게 7일동안 정성껏 자식의 무사귀환을 기도하여 아들 장춘과 상봉하는 보개의 경우²⁷⁾를 들 수 있다. 모성과 모성적 원리의 발현체인 관음보살의 출현은 현상적 자아를 넘어서 근원적 세계와의 교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수행자를 깨닫게 하는 여성중에는 관음의 화신으로 설명되는 인물들이 많다. 음욕을 가진 엄장을 깨우쳐 깨달음에 이르게 했다는 광덕의 처²⁸⁾, 관음을 친견하기 위해 낙산사로 가던 원효에게 몇 차례에 걸쳐 나타나 그를 깨우친 관음의 화신이었다는 여인들²⁹⁾, 한밤중에 수도중인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암자에 와 여러 행동으로 그들을 시험한 뒤 성불하게 했던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관음보살³⁰⁾ 등의 설화들은 수행자들에게 깨달음으로 가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를 갖가지 방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몇 유형에서 드러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그 승천의 요인으로 인연설이 부연되어 있을 지라도, 육면비의 지극한 수행의 자세는 현상적 자아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넘어서는 무아의 상태를 구현하고 있으며,³¹⁾ 관음신앙에서는 지극한 정성으로 개체 깊숙이

26) 삼국유사 권3 탑상 4, 백율사.

27) 삼국유사 권3 탑상, 민장사.

28) 삼국유사 권5 감통7, 광덕 엄장.

29) 삼국유사 권3 탑상4,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30) 삼국유사 권3 탑상,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

자리하고 있는 근원적인 세계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기원자(어머니)의 자세가 강조되어 있다. 이같은 설화속에서 여성들은 현존재의 한계를 정신적 영역에서 넘어서는 존재이며, 규격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깨달음의 조력자 역할을 하여 현상을 넘어설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³²⁾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 불교와 무속은 서로 밀접한 영향관계에 있었기 때문³³⁾에 불교적 가치관은 무속신앙 여성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무속 여성신들의 행적에서 보여지는 ‘자기부정’은 불교의 무아사상과 같은 또다른 방식의 자기부정 정신과 만나게 되면서 그것에 기반한 여

31) 옥면의 철저한 수행방식은 다음의 일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옥면이 종인 주제에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밋살스럽게 생각한 주인이 그녀에게 매양 곡식 두섬씩을 하루저녁에 다 쫓게 했지만 옥면은 초저녁에 방아 쪼는 일을 마치고 절에 와서 염불을 하기를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하며, 수행의 방법으로 절 들의 좌우에 긴 말뚝을 세우고 자기의 두 손바닥을 뚫어 줄을 꿰어서 좌우의 말뚝에다 매어 놓고 합장을 한 채로 좌우로 오락가락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했다고 한다. 이같은 수행의 결과 그녀는 하늘음악과 함께 집 대들보를 뚫고 솟아나와 서쪽교외로 나가 부처님몸으로 변해 연화대에 앉아 대광명을 내뿜으며 떠나갔다고 한다. (삼국유사 제7 감통)

32)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경우, 관음은 유혹녀의 모습으로 수행자들을 찾아와서 여러 형태의 곤란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수행자들에게 깨달음으로 가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를 방편적으로 제시한다. 이때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사실은 여러 형상으로 나뉜 관음의 모습이 방편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고정되고 규격화된 제관념들을 부정하고 현상에 함몰되지 말 것을 알려주고 있다.

33) 불교와 무속의 습합적인 양상은 이른 시기부터 나타난다. 신라 진흥왕대부터 시작되었다는 팔관회는 불교적인 행사로 시작되었지만 그 실제적인 내용은 전래하고 있는 무속적 의례방식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동식(1975),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출판부, p.73

성들의 삶의 자세와 가치를 더욱 강고하게 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3번째 유형인 수행자를 깨닫게 하는 선지식으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주로 中代 문무왕대에 집중되어 나타나다가 이후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시 불교계의 여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졌던 여성관이 보편화되면서 생겨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후 여성들의 신앙은 마음을 닦아 성불했다는 사례대신 현실에서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거나 내세에 인간으로 태어나 부귀를 누리거나 극락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형태로만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³⁴⁾

3.1.3. 고려후기부터 무속은 배격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규보의 ‘노무편’은 그같은 상황 즉, 무속에 대한 신흥사대부들의 비판적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안향³⁵⁾이나 우탁³⁶⁾ 등과 관련한 일화는 신흥사대부들이 무속을 구체적으로 배격했던 사실을 말해준다. 신흥사대부들이 정치담당층으로 자리한 조선조에 들어오면서 淫事를 금하는 조처들은 여러 차례 시행되었다.³⁷⁾ 유교, 특히 성리학이 국가적 이념으로 강조되면서부터 개인의 삶을 집단적 가치속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리학적 인간관은, 생명체 본연의 제요건들을 중시하여 자연적 생산력의 증대원리를 삶의 구체적 국면들에서 구현시키려 한 무속적 세계관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34) 김영미(1995), “신라불교사에 나타난 여성의 신앙생활과 승려들의 여성관”, 여성신학논집 1,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신학연구소, pp.143-46에는 이같은 당대 승려들의 여성관의 일단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35) 고려사열전 안향조 참조.

36) 조동일(1979),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pp.66-82.

37) 이능화, 조선무속고 참조.

유교가 국가의 지배적 이념이 되면서 유교적 윤리관념은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가치체계로 변화한다. 이에 따라 무속적 세계관속에서 자기부정을 통한 집단의 풍요획득으로 형상화된 여성 원형상은 유교적 여성관과 만나면서 극도로 축소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외법의 시행으로 여성의 활동영역이 집안으로 한정되고, 유가적 가족주의와 삼종지도의 규정 아래 종속적 존재로 자리하면서 여성의 역할은 가족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생산자로서 제한되었다. 즉 여성은 집안의 일꾼으로서 물질적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생산자이자 가계계승을 위해 아들을 낳아야 하는 생산자로서 역할지어졌다.

특히 정책적 차원에서 강조되었던 열이데올로기는 여성억압의 대표적인 機制로 작용했다. 무속 여성상에서 보였던 생명력은 이같은 유교적 여성관과 결합되면서 가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한정된 형태로만 작용하고 있다.

여성의 열은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실시했던 각종 포상제도에 힘입으면서 가문의 기득권유지 및 상승의 계기로 삼으려는 수단으로까지 전락된다.³⁸⁾ 강요된 열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삶을 부정하고 여성으로 하여금 열이념에 순교하게까지 함으로써 열은 지상 명제화되었다.³⁹⁾ 더구나 종법제의 시행으로 여성은 남성중심의 가족구조에 철저히 종속되어 자신의 안정된 미래를 위하여 가문을 계승할 수 있는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만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여성의 생산성은 이러한 상황속에서 가문의 번영이나

38) 박주(1990)(조선시대의 정표정책, 일조각)에서는 이같은 현상을 사료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39) 열녀전승의 전반적 양상에 대해서는 강진옥(1995b), “열녀전승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여성학논집 12,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를 참고할 것.

이익을 위한 가족 이기주의의 도구로까지 수단화되는 양상도 보인다.

무속은 주술성에 기반한 생활상의 필요에 의한 종교로서 이념성이 약하며, 무속신화속의 인물성격은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근원적인 에너지를 인격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행적에서 보여지는 여러 형태의 수난들은 보다 크고 많은 생산적 결과로 직결되어 있다. 여기에 비해 유교이념은 여성속의 근원적 생산력을 가부장적 이념으로 억압하고 길들여가면서 여성으로 하여금 그들속에 내재해 있는 에너지를 극단적 형태로 발현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삶을 비인간화 하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이같은 양상은 열녀 설화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三剛行實圖를 필두로 한 각종 官撰書에 나타나는 열관계 자료들은 다양한 형태의 열녀들의 형상을 잘 보여준다. 관찬서를 통해서 볼 때, 조선초기의 열녀들은 고려시대의 열녀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규범적 열녀상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열관념이 여성들의 일상생활속에 구체화되어갔음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여성의 자기부정성은 유교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만나면서 더욱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양상을 띄게 되었고 여성은 이제 수단적 존재로 전락한다. 여성의 내면적 동기나 인간으로서의 본능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이들 기록들은 여성인물의 감정적 변화나 내적 갈등을 전혀 그려내고 있지 않은데, 여성인물은 남편이나 가족주의적 윤리관에 의해 사고하고 행동할 뿐이다. 유교적 여성윤리관은 내혼을 비롯한 女四書 등의 여성윤리교육서를 통해 사대부여성들을 중심으로 학습되면서 그들의 행위의 당위로 정착되어간 것으로 보인다. 남편이 죽으면 당연히 따라죽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여성인물이나, 따라죽고자 했으나 연로한 시부모 봉양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봉양의 의

무를 다하고 양자를 들여 시집의 후사를 잇게 한 뒤에 앞일을 당부하고 자살하는 여성인물의 일화⁴⁰⁾는 여성이 독립된 인간으로서 주체적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배제한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남편이 죽자 임신한 몸인데도 따라 죽으려고 하다가 태아를 생각하여 보중하라는 시부모의 충고 때문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죽을 먹을 만큼 자랐을 때 자살하는 예화⁴¹⁾에서는 모성본능을 이길만큼 강력한 ‘따라죽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가 있다. 양육에 대한 의무와 상관없이 남편을 따라죽는 열녀의 경우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부덕이라는 이념에 매여있는 절부라고 불리는 여성의 행동은 스스로를 남편에 종속된 존재이며, 또한 가문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도구적 존재로서의 몰주체적 사고를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갖은 외침으로 전시와 같은 비상시에 죽음으로써 정절을 지킨 여성들의 사례는 무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강화된 열절의식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로서, 추격해오는 적을 피해 배를 향해 달려오는 여성이 배에서 도와주려고 사공이 손을 내밀자 ‘실절하면서까지 목숨을 구할 수 없다’면서 강물에 몸을 던진 사례까지 전해지고 있다.⁴²⁾ 이같은 사례속에 나타나는 여성들은 이념의 화신으로서 오직烈節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 존재할 뿐이다. 열녀는 극단적인 자기 희생, 즉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과감한 자기부정에 바탕한 自害라는 처절한 희생을 통해서만 입증되기 때문이다.⁴³⁾ 무속신화속의 여성상에서 드러난 자기부정이라는 정신은 경직된 형태의 유교적 열의

40) 溪西野譚, 李節婦忠武公後裔也

41) 아세아문화사영인, 경주읍지, 烈女河氏.

42) 현종실록 권 19, 현종 12년 6월 계묘년 鄭信男의 딸.

43) 강진옥(1995b) 참조.

식속에서 극도로 억압적인 형상으로 변모되어갔던 것이다.

3.2.민속신앙관념 : 祈子俗의 경우

3.2.1.마을 공동체의 풍요의례에서 행해지는 神婚⁴⁴⁾은 집단의 생산력을 보장하는 주술적인 행위이다. 무속의례도 이러한 풍요의례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그 신격에 대한 숭앙은 신들이 생산력을 발휘하여 집단에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로 믿어졌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러한 풍요가 신화구조에서 출산으로 대체되는 이유는 그렇게 태어난 신화적 인물이 집단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영웅적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기록에 나타나는 祈子俗의 가장 초기양상은 神壇樹下에서 행해진 웅녀의 祈子精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환웅과 웅녀의 신혼으로 연결되고 단군의 탄생이라는 풍요로운 결말로 귀결된다.

신혼의 결과로 나타나던 출산은 父家系 계승이 강화되면서 아들낳기만을 중시하는 기자속으로 변모된 것으로 보인다. 풍요의례에서 중시되었던 원초적 생산성과 그것의 발현결과인 풍요 개념은 性の 구별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男兒選好로 한정되는 기자속은 풍요의례의 원래적 정신과는 달리 가부장적 이념아래 변모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3.2.2.기자속은 전통사회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44) 동계에서 행해지는 마을을 지키는 남녀신의 결혼을 뜻하는 모의적인 성행위는 바로 공동체의 풍요를 기원하는 유감주술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암수로 나누어 당겨지는 줄다리기도 이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시도해 보았을 대표적인 여성 민속신앙의 하나이다. 민간신앙적 차원에서 기자정성은 특정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온 자연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암석신앙이다.⁴⁵⁾ 전국 각처에서 기도처 구실을 했던 男根 형상의 돌들에 대한 신앙은 현재까지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러한 자연물을 대상으로한 기자속의 형태가 불교 수입 이후에는 불교적인 방식의 기자정성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제주도 무속신화에는 절 기도가 흔히 나타나는데 딸이 태어난 것을 부모들의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남아선호는 가부장권이 확립된 이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겠지만, 조선조에 들어와 신유학적 이념체계에 입각한 男尊女卑 사상이 강화되면서 남아출산의 중요성은 더욱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가정내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여성들은 자신들의 생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라도 아들낳기에 전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혈통에 바탕한 가문계승의식이 강화되면서 출산을 위한 여러 비인간적인 방법이 은밀하게 행해지기도 했다.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할 때에는 씨반이를 동원하기도 했고 불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을 경우에는 ‘남의 남성 보기’⁴⁶⁾도 행해졌다고 한다. 여성의 열의식을 엄격히

45) 기자신앙은 크게 산의 큰바위 부처·삼신에게 비는 치성기자, 어떤 특수한 사물을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그것을 먹는 呪術기자, 아들을 못 낳는 아낙네들이 아들을 얻기 위하여 어떤 특정한 사물을 지니고 다니는 呪物기자로 대별된다. 각 유형에 속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다양하여 모두 거론하기가 어렵다. 한국민속대사전 1, 민족문화사, 1991, pp.213-215 참조.

46) “이것은 아들이 없는 여성이 多男한 가정의 남성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임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성들간의 공유된 비밀이다...아들 출산이라는 절대적 의무속에 살아가는 여성은 법적으로는 ‘일부종사’를 하면

강조했던 전통사회에서 이같은 방법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사실은 대를 잇고자 하는 의식이 얼마나 우선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3.2.3. 기자정성의 본질은 자식낳기에 있다. 정성들이는 여성은 자연적 생산력을 자신의 삶속에 끌어들여 자기 앞에 놓인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수많은 시련을 감내하고 고통을 감당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 무속 여성신격의 자세와 유사한 면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들의 동기와 지향가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자속은 여성인물들이 가정내적인 자기 위상정립이라는 이기적인 동기, 좀더 나아간다고 해도 가문계승이라는 가족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한정된 가치성취에 머무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무속신화의 인물들은 비록, 그들이 보여준 특정 행위가 가족 또는 개인 차원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루어내는 결과는 개인적 차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들은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들을 낳거나, 삶의 행적을 통해 인간 삶의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존재들이다. 당금애기는 생산신을 출산하고 양육함으로써 자신의 생산신적 성격도 함께 발휘했으며, 죽음의 영역과 관련된 바리데기도 이승과 저승 - 생과 사라는 상반된 영역을 넘나들면서 생명소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자청비는 인간세상에 농산물의 재배와 파종을 가능하게 했고 인간의 삶이 번성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었다. 삼승할망은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신격이기 때문에 생명을 관장하는 존재로서의 능력확인 과정을 거쳤던 것이다.

서 실제적으로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까지 이용해야 하는 극단적인 일을 감행하는 것이다.” 김진명(1993), *굴레속의 한국여성*, 집문당, p.81.

아들만을 낳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기자속은 이같은 무속신화의 여성신들의 정신을 본질적으로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가문의 계승을 중시하여 아들 낳기를 희망하는 가족주의적 사고속에 머물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격의 집단적 풍요획득이라는 결과에 대응하는 이들 여성들의 아들낳기 위한 노력들은 가족적 차원에 한정될 뿐이다. 여성들은 가문의 일원으로서 가문의 번영을 자신의 가치체계로 무장한 신봉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3.2.3. 전통적인 기자속 방식인 자연물 숭배관념은 현대교육을 받은 여성들에게는 미신으로 불신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기자정성은 아직도 여성의식의 저층에 존재하고 있다. 다만 그들이 자연물을 신앙 대상으로 삼고 그 기원의 내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해결의 방법으로서 주술이 사용되었던 것에 비해, 고등종교의 성소인 사찰이나 교회를 이용하고 현대적인 의료장비를 동원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과거 여성들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거듭거듭 출산했지만, 효율적으로 아들낳기를 원하는 현대여성들의 욕구는 최첨단 설비를 동원한 의술과 결합하여 양수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태아의 성을 감별하고 선택적 출산을 함으로써 生命輕視라는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전통적 기자속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자속은, 가부장적 이념이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그 외형적인 변모를 거듭하면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남아출산을 위한 방법이 과거에는 주술적인 方便에 의존했다면 현대에는 의술이라는 과학적 수단으로 대체되고 있을 뿐이다. 생물학적으로 개체속에 내재하는 종족보존의 본능과 전통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가부장적 이념, 거기에 유교적 가문의식이 결합하면서 더욱 강화된 기자속은 오늘날에도 존속

되고 있는 굳건한 가부장제 하에서 쉽사리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⁴⁷⁾

오늘날 여성자신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일어남에 따라 민법이 개정되면서 호주상속제의 폐지, 동등해진 재산상속권 등의 변화와 함께 맹목적인 남아출산을 고집하지 않는 젊은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경우 여성자신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들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시부모가 계시는 집안의 며느리에게 남아출산은 막중한 의무로 부과되고 있다. 손자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부간의 갈등이 최근까지도 주부들의 시청율이 높은 아침드라마의 주요갈등을 이룰 수 있었던 것⁴⁸⁾도 우리 속에 뿌리깊은 이러한 관념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3.3. 민속문학에 나타나는 여성상

한국여성상의 원형을 이루는 무속적 여성상이 외래사상이 유입 및 확

47) 이같은 현상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동태 분석에 의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94년 한해동안 신생아 출생율을 보면 여아 1백명당 남아 1백 15명이 출생했는데, 특히 출생아 중 세째 아이의 성비는 여아 1백명당 남아 2백6명, 네째 아이의 경우 여아 1백명당 2백 38명으로 급등하고 있다. 이는 두 자녀 이상의 아이를 갖는 주된 이유가 아들을 얻기 위한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같은 비정상적인 출생아의 성비는 아들을 낳기 위해 여러 형태의 의학적 검사를 거쳐 선택적 출산을 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다.

48) 1994년 봄에 방영된 <자매들>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는 여성들이 많이 시청하는 아침 시간대에 방영되었는데, 아들나지 못하는 대학교수인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칼럼을 통해서도 심심치않게 증언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신문 1996. 1. 19일자에 실린 차희제, “낙태·남아선호 유감”은 그 좋은 예의 하나이다.

산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동일한 계층이 향유한 민속예술인 탈춤, 판소리, 설화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여성인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다루는 인물 선택의 기준은 앞에서 논의한 무속신화와와의 유사성 여부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외형적으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행적이 결과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어떠한가에 근거를 두었다.

3.3.1. 무속여성상의 창조적 계승양상

3.3.1.1. 민담적 양상에서 특기할 만한 인물은 손병사어머니를 들 수가 있다.

<孫兵使 어머니>⁴⁹⁾는 담력과 배짱과 소신으로 가정내 개혁을 이루었으며 손병사를 낳았다. 자신속에 내재한 생명력, 생산성을 당당하게 발휘한 인물이다. 당대사회에 일반화되었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창조적 변화를 실천했다. 그녀가 파괴한 것은 神堂으로 설정된 시집식구들의 고착된 통념으로 이것은 그가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손병사 어머니는 시집오는 길에 약정한 날을 며칠씩이나 넘겨가면서 경치좋은 곳을 두루 유람하고 기생을 불러 풍악을 잡히기까지 하며 심지어는 그 소리채를 어음으로 주어 시집에 돌아온 뒤에 시아버지로 하여금 갚게 하는 등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이다. 그녀의 파격적 행동은 갓 시집온 새색시가 시집에서 여러 대째 모셔왔던 神堂에 참배하

49) '유형번호 133-1 부모가 시련 겪고 태어난 영웅'에 해당되는 자료이다. 그 자료목록은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1) 한국설화유형분류집, p.151 참조.

는 것을 거부할 뿐 아니라 주변사람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불태워 없애는 데에서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노한 귀신이 몇차례나 나타나 새로 태어난 그녀의 아들들을 잡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맞서서 결국 귀신을 굴복시키고 병사가 될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녀의 근원적 생산성은 또 다른 파격적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마 타고 가다 오줌을 누는 장면이다. 소변 누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말하자 그녀는 위축되지 않고 맞대응한다. (대계 8-1 349) 여기서 그녀가 여성의 몸에 대한 통념을 넘어서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같은 점들은 그녀가 고정된 여성역할이라는 통념 밖에 있는 존재임을 말해준다. 여성은 암전하고 조신해야 한다는 통념적 가치를 지키지 않는 것은 당시 사회의 여성에 대한 규범적 인식을 넘어서 있는 태도인데 이야기에는 이같은 손병사모친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기가 센 성격, 거침없는 언동, 오줌누는 소리에 대한 서술 등은 그녀가 지닌 원형적 생산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같은 여성인물의 행동양상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자세의 근거는 외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윤리적 가치나 이념이 아니다. 그것은 윤리적 규범 너머의 인간적인 본성을 중시하는 합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가치인 것이다.

<내 복에 산다>형 민담⁵⁰⁾에서 여성인물은 가문장아기와 동계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인물은 스스로 자기 복에 산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여성인물의 비범성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신분적 열등성만을 문

50) 유형번호 715-1 솥구이 총각의 생금장, 대계 별책부록(1). 한국설화유형 분류집, pp.601-603

제삼은 남편으로부터 쫓겨나와 재가한 남편과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거지가 된 전남편을 도와준다. 여성속에 내재해있는 근원적 생명력은 민담적 상상력속에서 현실적 생활과 물질적 풍요로 한정되어 있지만 그 여성에게 가해지는 신분적 제약이나 가난한 현실들에 구애되지 않고 낙관적으로 타개해나가는 점은 여성신격들이 발휘했던 강력한 생명력과 생산성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림 잘 하는 며느리>⁵¹⁾는 며느리 뽑는 시험에 응모하여 개척자적 인 삶의 태도를 발휘하여 합격할 뿐 아니라 물려받은 집안을 잘 일구어낸 여성인물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인물형은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가 적극적이어서 창조적인 방향의 개선책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다.

<이인 여성들>⁵²⁾은 일상적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범성을 내재하고 있는 여성들로서 공동체 전반에 다가올 위기-예컨데 戰亂 등-를 예시하고 그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문제해결의 단서를 제공한다. 이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 당대의 통념적 여성상과는 매우 이질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매우 못생겼거나, 오랫동안 말을 참거나 비밀상적인 행동을 일삼는 등 외모나 행동거지로 볼 때는 보통 이하로 보이지만 그들이 해결해내는 문제의 내용은 일상적 인물들이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것들이다.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지닌, 대단히 지혜롭고 용기있는 여성들로 그려진다.

이같은 여성인물들의 모습은, 남성들이 외적인 힘의 발현자로 대변되는 데 비해 여성은 지혜·근원적 에너지로서 남성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현상적 힘을 가동시키는 숨은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양

51) 구비문학대계 7-12 55 지혜로운 부잣집 맏며느리.

52) 대계 별책부록(1) 한국설화유형집 pp.224-227 참조.

상은 숨은 이인형의 여성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리 문화 전통에서 가정은 근원적인 생산의 공간으로 볼 수가 있다. 우리 사회는 남성들이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사회로 보이지만 남성은 그 가문 전체의 대표격인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이고 여성들은 그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남성을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근원적인 에너지로 존재한다. 이들 여성은 드러나지 않는 지혜의 대변자(숨은 이인여성들-전란에 대비한 여성들), 가문을 지탱하게 하는 생산력의 발휘자(비범한 아들 낳은 못난 여자들의 경우), 살림을 지혜롭게 일구어낸 여자 등으로서 무엇이든 생산하고 산출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비록 사회적인 활약으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들의 역할들은 바로 드러난 외적 힘을 가능하게 하는 숨은 원리이자 근원적 에너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민담의 전통을 이루고 있는 愚夫賢女설화형식의 여성인물들은 이같은 창조적 계승의 형태들로 볼 수가 있다. 이같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로, 먼저 신화적 상징으로 볼 때, 한국 무속신화속에서 나타나는 생산의 원리가 여성원리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주목할 수 있다. 여성원리를 우위에 두는 관념이 인격적 형태로 변할 때 여성-우월한 존재라는 발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른 하나는 현실적 측면으로서, 여성의 삶이 열악하였으므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혜와 능력이 개발됨으로써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뛰어나게 되었을 가능성을 들 수가 있다. 이것은 약한자와 강한자의 대결이 힘과 지혜의 대결로 귀결되는 것과 유사한 경우인데, 약한자는 약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혜라는 대응방법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3.3.1.2. 판소리적 양상

<춘향가>의 주인공 춘향은 근대적 자각에 이른 인간형이다. 죽음과 같은 시련을 겪고 끝내 자신속에 내재한 근원적 생산성을 자아실현의 측면으로 승화시킨 인물이다. 열이라는 당대의 이념을 수단으로 하여 자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인간적 삶의 성취를 이루어낸 춘향은 앞서 보았던 전형적인 열녀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구현하고 있다.

<심청가>의 심청도 효녀라는 점에서 당대의 이념적 가치를 실천한 인물로 볼 수 있지만 그의 효행은 유가적 효관념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단순히 유교이념적 효행의 화신으로 보기 어렵다. 심청이 효행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고행과 상징적인 죽음의 과정은 무속여성신들의 행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자기부정에 다름아니다. 또한 심청전의 결말에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눈뜸은 삼공본풀이의 가문장아가 보여주는 결말과도 유사성을 지닌다. 더구나 심봉사가 눈뜨는 장면에서 맹인잔치에 함께 모였던 모든 맹인들이 함께 눈을 뜨는 대목은 무속여성신들의 행적이 개인적인 문제에서 출발했다가 집단적인 문제해결로 확장되는 귀결을 보여주는 것과도 대응되는 부분이라 주목된다.

3.3.2. 무속여성상의 부정적 계승양상

가장 두드러진 인물형으로 봉산탈춤 미얄과장에 나오는 미얄할미를 들 수 있다. 민속극은 세시풍속의 일환으로 농경의식과 관련하여 공연되었다. 미얄은 전쟁중에 남편과 헤어진 뒤 자식들까지 잃고 갇은 고생을 하다가 영감을 만났지만 그가 젊은 첩을 데리고 사는 것을 보고 다투다가 죽음을 당하는 인물이다. 늙은 데다 자식까지 잃은 미얄은

생산성을 거세당한 불모의 상징으로서, 왜곡되고 변형된 생산신의 모습을 지닌다. 제의적 맥락과 무관한 극적 인물로서의 미알은 남성의 횡포에 희생당하는 하층민 여성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

<변강쇠가>의 옹녀는 또 다르게 왜곡된 인물형이다. 생산신신화및 건국신화속의 여성인물의 행적과 동일구조를 지니고 있는 옹녀의 삶은 제의적 맥락을 벗어난 연행예술로 변모되면서 신화적 성격을 상실하고 反神話化한 것으로 보인다.⁵³⁾ 제의적 맥락에서 여성신의 생산성을 상징했던 아름다움은 제의와 무관한 세속적 연행예술속의 옹녀의 경우와 같이 쾌락적인 性의 대상으로 도구화되고, 생산과 무관한 성은 不毛性을 상징하게 된다. 그녀와 상관한 남성들의 죽음은 그같은 맥락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온 마을 남성들을 모두 죽음으로 몰고갈 정도로 엄청난 상부살 때문에 마을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옹녀의 뛰어난 미모는 강쇠를 비롯한 여타의 남성들에게 성의 대상으로 인식될 뿐이며, 이미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옹녀 자신도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 성을 상품화하는 경향마저 보인다.

이 두 인물은 제의적 맥락속에서 형성된 신화적 인물형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미알은 극중의 대사를 통해서 무속과 매우 친연성이 있는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인물들은 우리 고전문학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인물형을 대표하고 있다. 이들이 겪는 현실적 삶의 고통은 타 서사문학의 일반적 전개방식이 결핍에서 충족이라는 행복한 결말로 귀결되는 것과 비교된다. 가난을 문제삼은 흥부가의 경우도 삶의 궁핍상이 해학적인 방식으로 그려졌을 뿐 아니라 환상적인 해결방식을 통한 행복한 결말 때문에 등장인물이 겪는 궁핍이 비극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인물의 경우 현실적 결핍은

53) 강진옥(1993), pp.21-25.

결말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들 존재조건과 갈등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제시된다. 그들의 결핍상황은 해소의 단서도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궁핍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알할미의 죽음으로 귀결되는 미알과 장이나 웅녀가 맞이하게 될 현실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끝나버리는 변강쇠가의 결말은 이들이 더이상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제의적인 속성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이들 인물형이 당대 상황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형으로 변모되어간 사실은 이미 제의적 기반을 상실한 생산신이 당대사회에서 창조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현실 대응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들 무속신화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에서 다룬 창조적 여성인물형들은 그것에 대한 하나의 단서가 될 것으로 본다. 진정한 무속신화의 계승은 외적인 유사성속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당대의 역사적 상황속에서 당대인의 구체적인 삶의 형태로 재창조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3.3.3. 두 대응양상의 의미

무속여성상이 긍정적으로 계승된 형태는 여성-생산성-창조적 방향의 대응을 보여준다. 무속 여성신격속에 내재한 창조적 생산력을 계승한 이같은 여성상은 민담속에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들의 비범성은 비일상속에 가려져 있어 쉽게 포착하기 어렵다. 知人知鑑에 의해서 발견되거나 또는 그들의 생래적 비범성이 상황의 특이성 때문에 드러나게 되어 해결자적 면모를 발휘함으로써 결핍상황을 풍요로운 결과로 전환시켜 놓는 것이다. 우부현녀의 주제로 거듭 나타나는 다양한

여성인물형은 한국 여성의 원형상을 이루는 무속 여성신격의 근원적 속성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부정적 계승형태는 여성-불모성-소모, 파괴적 방향의 왜곡을 보여준다. 이들은 근원적으로는 풍요의례의 신격적 속성을 지녔으나 제의적 맥락과 무관하게 되면서 신성을 상실하고 일상적인 인물로 변모한 여성들이다. 이들의 모습은 무속 여성신격속에 나타났던 여성 원형상이 가부장적 제도하에서 변모되어간 양상을 짐작할 수 있는 한 단서가 된다.

4. 바람직한 여성상 모색의 단서와 전망

4.1. 현대사회와 여성적 현실

4.1.1.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이 변화함에 따라 그 사회의 가치기준과 삶의 양상도 달라진다. 가장 최근까지 우리사회를 지배했던 유교이념이 약화되면서 여성들의 삶의 양식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서구적 민주주의의 이입과 함께 여성 교육의 양적 질적인 증대와 사회 전반적 각성이 높아져 전시대와 같은 일방적인 가치관의 강요는 현저하게 약화되었지만, 여성 삶의 조건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모된 것은 아니다. 여성 억압의 본질이 유교 그 자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유교적 이념이 현저하게 약화된 현재에도 비인간적 억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향해가는 오늘날에도 기자속은 엄연히 존재한다. 기자속의

근원을 이루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존재하고 여성들이 그것에 순응하는 한, 근원적인 여성억압의 기제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가부장제-가계계승-남아선호-아들낳기 위한 갖가지 방법의 모색으로 이어지는 비인간화 양상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이 굳건한 가부장제 이념의 굴레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망을 가질 수 있는가?

4.1.2.상업주의의 만연에 따라 여성의 성이 도구화, 상품화되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대중매체는 상업주의에 편승하여 상업적 가치들을 아름다움이라 부추기면서 소비생활을 주도해나간다. 이같은 상황은 여성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주체적인 존재로 자각하게 하기 보다는 상업주의가 조작한 가치기준에 자신을 맞추어나가는 價値顛倒的인 삶의 양식속에 머물게 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이 수단적 존재로 인식되었던 흔적은 우리 역사속에도 유교적인 이념을 맹종하던 열녀들의 행적을 통해 뚜렷하게 전해지고 있다. 정책적인 보상장치로 열녀가 量産되면서 열절은 가문의 이익을 위한 담보물로 제공되었다. 동물과 다른 인간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념에 헌신한 그들은 역설적으로 비인간적 윤리를 자행하게 되는 가치전도적 양상까지 드러내었던 것이다. 犧性烈전설⁵⁴⁾은 이같은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전통적으로 존속해온 女性卑下 관념은 근대적 상업주의와 결합되면

54) 구전열녀설화의 한 유형인데 해당되는 유화의 내용을 하나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남편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다른 마을로 살러 갔지만,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남편이 집을 떠나버리자 생활방편으로 다른 남자와 함께 살던 아내는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를 낳아서 술을 담아놓았다가 후일 남편이 들렀을 때 그 술을 먹여 병을 낫게 한 뒤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되돌아간다. 마을 입구에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목을 매어 죽는다. 구비문학대계 6-1 의신면 설화 22.

서 여성을 도구화하는 관점을 가속화한다. 처첩갈등의 희생물인 미얄이나 성적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옹녀는 조선후기에도 이같은 여성관이 명백히 존재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진 여성관은 아직도 여성을 지배하고 있는 억센 굴레로 자리하고 있다. 유교의 지배를 벗어나면서 여성들은 많은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여성문제의 본질을 이루어온 가부장제의 틀 안에서 허용 가능한 몇몇 현상에 한정된 변화와 자유일 뿐이다.

4.2. 문제해결의 단서 : 무속여성신들의 근원적 생산성에 대한 재발견

4.2.1. 국제화시대의 서구문화와 밀접한 관련속에 있는 오늘날, 한국 여성이 처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스스로 그 해결의 방안을 찾는 것이다. 여성문제에 대한 자각과 구체적인 문제제기 방법에서 서구 이론에 크게 힘입은 바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구의 시각이나 방법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일 수는 없다. 우리들 한국여성은 우리 자신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속에서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어떠한 역사 문화적 맥락속에서 지금 이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소박하나마 문제해결의 한 단서일 수 있다.

우리 문화의 근원을 이루는 무속은 이러한 면에서 접근의 단서를 제공한다.

4.2.2. 무속신화속의 여성신은 職能神이면서도 분업화된 특정직능으로 한정되기 이전의 모습인, 근원적인 생산성을 발휘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들은 처음부터 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속에 내재한 근

원적 생산성을 발휘하여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신격에 좌절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은 우리 여신과 서구의 여신들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다. 우리들에게 신화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희랍신화와 비교해 볼 우리 무속여성신들의 이같은 특성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희랍의 여신들이 신으로 태어나 한정된 직능만을 수행하는 것에 비할 때 한국 무속여성신들의 이같은 속성은 보다 근원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시련에 맞서 내재해있는 위대함·신성성을 발휘함으로서 비범성을 인정받고 신직을 수여받는다는 이들의 신격좌절을 향한 생성과정은 완성을 향해 노력하는 우리들 인간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 특히 서구·희랍신화가 제의적 기능을 상실하고 문학적 성격을 지닌 이야기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에 비할 때 우리 무속신화의 여성신들은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적 현장속에서 불러지는 살아있는 신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힘은 특히 주목되는 바이다.

이같은 여성들의 모습은 바로 한국 전통적인 여성들이 배우고 닦으려 한 이상적인 삶의 전범들이다. 그들에 관한 본풀이가 매번의 무속 의례속에서 구연되는 동안 이상적인 인간이자 이상적인 여성의 전범으로서 무속여성들은 한국 여성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았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무속신화속에 반영된 여성상은 그같은 여성상을 산출해낸 당대 사회의 여성이해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형성 근원도 당대의 우리 여성들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내재해 있는 이러한 근원적인 힘에 대한 자각은 여성이 자신의 근원성을 상실하고 있는 이때 한국여성으로서의 整體性 確認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우리들의 해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문화의 가장 깊숙한 층위속에 핵으로 자리해 온 무속 여성신격들, 바로 우리들속에 있는 근원적인 여신들을 다시 발견하고 회복하는 길이다. 수동적이고 도구적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근원적인 생산성으로서 존재했었던 여인들을 오늘의 삶속에서 다시 만나는 길이다.

그들속에 내재하고 있는 힘은 우리들의 근원적인 모습이다. 우리 자신에게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속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본래적 자아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아인식은 문제해결의 시작이다. 참된 자신을 자각하기만 하면 그것을 자신속에 되살리기 위한 노력은 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힘이 선행한다면 문제를 자각하고 직시하면서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모색도 가능해질 수 있다. 그것은 아마도 서구적인 이분법적 대결구조는 아닐 것이다. 여성만의 유토피아의 건설이나, 여성의 생산성을 母性性에만 한정하는 형태는 우리 무속신화의 여성상의 본질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아니다. 무속신화의 여성들에게, 모성성은 여성성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부분이었을 뿐이다.

모든 근원적인 생산성은 삶의 전영역에 작용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분명한 전망 하나는 있다. 그 힘은 모든 상반된 현상들을 대립적 갈등구조속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특성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랑과 평화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대지가 자신이 낳은 그 모든 것을 아끼고 기르는 것처럼.

5. 맺음말

무속의례는 전통사회속에서 매우 중요시된 생산의례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다. 풍요를 가져오는 근원적인 생명력에 근거하고 있는 여성신격의 행적은 그 의례를 주관하고 신앙하는 여성신도들에게는 하나의 전범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무속신화속에 나타나는 이같은 여성상은 그것이 형성되었던 당대사회의 여성이해의 시각을 반영한다. 여성에 대한 이같은 관점은 사회를 지배하던 이념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변모되어 갔던 것이다. 유교의 열관념은 그 대표적인 경우가 된다. 풍요의례의 한 부분에 속하던 祈子俗도 가부장적 이념과 결부되면서 남아출산의 방편으로 강화되었다. 기사속은, 가부장적 이념이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그 외형적인 변모를 거듭하면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남아출산을 위한 방법이 과거에는 주술적인 방편에 의존했다면 현대에는 의술이라는 과학적 수단으로 대체되고 있을 뿐이다.

한국여성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변모시켰던 열관념은 오늘날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유교적 이념이 쇠퇴하면서 서구적 자유민주주의 영향아래 핵가족의 보편화와 인간개개인의 존엄에 대한 자각으로, 맹목적 열관념은 여성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자발적인 결단과 선택에 의한 사랑이 중시되면서 사라져가고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위의 두 형태는 계승과 극복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오늘날에도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전통적 이념이나 가치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전통사회의 가족주의적 가치관 아래 여성이 자기 위치를 지켜가는 최고의 방법이었던

아들출산이라는 방편은, 가부장제 이념이 지배하는 오늘날에도 의술이라는 수단을 빌어 여전히 존속하면서 가부장제 이념을 뒷받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비록 個我的인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여성들로 하여금 유교적 이념 그 자체에 맹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이같은 변모는 아직도 현대적 생활방식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적 문제에서만 가능할 뿐, 보다 거시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인식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간혹 그같은 문제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생적 현실대응력을 얻을 수 있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로 보인다.

이제 우리는 여성자신이 남성중심적 시각을 벗어나 주체적 관점에서서 인간적 자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재구성되어온, 그 참모습과는 떨어진 왜곡된 여성상이 아니라 한국여성의 원래적 모습이 무엇인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근본으로 거슬러올라가는 그 끝에서 우리는 한국 문화의 기층을 이루는 무속의 여성신들을 만날 수 있다. 무속 여성신격속에 내재해있는 근원적 생산성에 대한 재발견은 오랜 가부장제하에 억압되어있던 한국여성들의 자아발견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여성자신속에 비축되어 있는 가능성적 창조력인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편

계서야담 삼국사기 삼국유사 읍지 20(아세아문화사 영인) 현종실록
한국구비문학대계

연구논저편

- 강진옥(1993), 변강쇠가 연구 I, 동리연구 창간호, 동리연구회.
강진옥(1994), 변강쇠가 연구 II, 이화어문논집 1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강진옥(1995a), 무속신화와 일상의례를 통해 본 여성의 종교성,
여성신학논집 1,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신학연구소.
강진옥(1995b), 열녀전승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 여성학논집 1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김대숙(1988), 여인발복 설화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김영미(1995), “신라불교사에 나타난 여성의 신앙생활과 승려들의 여성
관”, 여성신학논집 1, 이화여대여성신학 연구소.
김인희(1987), 한국무속사상연구, 집문당.
김진명(1993), 굴레속의 한국여성, 집문당.
박 주(1990), 조선시대의 정표정책, 일조각.
서대석(1980),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서대석(1982), “무가”, 한국민속대관 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유동식(1975),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출판부.

이능화, 조선무속고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1972), 한국여성사 1, 이화여대
출판부.

최길성(1982), 무속에 있어서 집과 여성, 한국무속의 종합적 고찰, 고려
대민족문화연구소.

한국구비문학회(1977), 한국구비문학선집, 일조각.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I) 한국설화유형집.

현용준(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